| 사회적 대화 국제동향 |

EU의 청년 대표활동 현황에 관한 연구

손옥이 국제협력 전문위원

1. 청년 대표활동 경향 분석

주요 연구결과

- 2019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에 의하면 청년들은 민주생활에 매우 적극적이고, 참여 수준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는 2011–14년 관측되었던 추세를 뒤집는 결과이다. 2014년 이후 자원봉사 및 NGO 가입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 청년들은 일반대중과 다른 이슈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유로바로미터 연구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청년들의 특별한 관심을 볼 수 있다. 실제, 2019년 우선의제로서 환경보호가 처음으로 교육을 추월하였다.
- 청년들의 사회이슈에 대한 관심은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다. 풀타임 교육과정에 더 오래 남아있을수록 환경이슈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고, 풀타임 교육과정을 일찍 떠난 청년들은 빈곤이나 사회적 불평등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1)]
- 유로바로미터 자료는 자원봉사와 교환활동을 통한 청년들의 이동성과 폭넓은 참여형태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조사에 응한 청년들은 해외 경험 이후에 민주주의 및 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답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 동 연구에 따르면 많은 유럽 국가 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EU의 청년 부문은 성장하고 있고 NGO와 네트워크 등 전통적인 청년 조직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유럽집행위원회(EC) 보조금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조사에 응한 단체의 1/4(25%)이 2011년 이후 설립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한정된 EU 보조금을 받기 위한 NGO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청년들에게 비슷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일부 NGO는 밀려나게 되었다.
- 동 연구 전반에서 '디지털' 관련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절반 이상(54%)의 NGO가 온라인을 효율적인 정보획득 수단으로 평가하였고, 71%가 지원활동에 특히 유용하다고 답하였다. NGO들은 소셜미디어를 학교와 청년활동, 모임에서의 모집활동 등 '현장' 참여와 결합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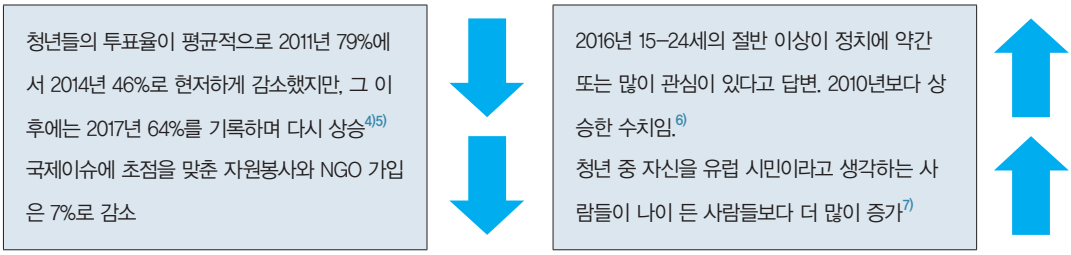
1.1. 청년들의 민주생활 참여 경향

빠른 사회·경제·정치적 변화에 따라 지난 몇십 년간 유럽 청년들의 상황도 변화하였다. 2018년 EU 28개국 주민 8,720만 명(전체 인구의 17%)이 15–29세 청년이었다.[2]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청년인구가 상당히 감소하였고, 청년인구 감소는 미래의 더 젊은 세대에 추가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EU 회원국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2004년과 2007년에 각각 10개와 2개 회원국이 추가(그 이후 크로아티아도 추가됨)되면서 청년들의 이동성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Erasmus+' 등 다른 EU 회원국간 이동제도는 직접적으로는 교환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기여함으로써 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이동성의 정치·경제·사회적 효과를 EU 회원국 전체가 고르게 경험한 것은 아니었다. 중부·동부 유럽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고숙련 청년들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은 농촌지역과 탈공업화 지역의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3]

[그림 1]의 EU 통계에서 보듯이 지난 10년간 청년들의 참여에 있어 몇 가지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1 **한눈에 보는 EU 청년들의 참여도 추세**



정치에 대한 유럽 청년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중요한 사회이슈에 대해 행동에 나설 의향이 커지고 있다**는 조짐이 분명히 있다. 이러한 시각은 New Narrative for Europe 이니셔티브의 틀 내에서 실시한 청년들과의 협의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동 이니셔티브는 이동의 자유와 안전, 시민참여, 고용, 환경을 다음 주기의 네 가지 주요 우선의제로 꼽

았다.[8] 유로바로미터 자료에 따르면, 15–24세 청년들이 나이 든 그룹에 비해 EU에 대한 소속감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9]

하지만 이와 동시에, **청년들의 평균 투표율은 EU 전반에 걸쳐 등락을 거듭**했다. 유로바로미터 조사시점 2011년과 2014년 사이 기간에는 **정당 가입자 하락**과 함께 투표율도 하락하였다.[10] 이러한 추세는 청년들의 정치의식은 약해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좀 더 개별화되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정당정치보다는) 단일쟁점 또는 그들의 일상생활과 더 관련되어 있는 참여방식을 선택했음을 보여준다.[11] 이는 '효율성 중심'의 시민권 개념으로 설명된다.[12] 이러한 경향은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우리가 인터뷰한 표적그룹 청년들 사이에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9년 4월 발표된 청년들의 시각에 관한 최신 '플래시 유로바로미터(Flash Eurobarometer)'는 이러한 경향의 최근 자료를 제공한다.[13] 동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민주생활에 매우 적극적이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2011–14년 통계와 반대되는 추세이다.[14] 청년의 3/4이 조직화된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15] 청년들은 조직화된 자원봉사 활동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2011년 대비 2019년에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9% 높아졌다(2011년 24%, 2019년 33%).[16]

이러한 추세는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 의해 다소 강화되었다. 예전과 비교하여 2019년 투표율은 모든 연령그룹에서 상승하였지만, 청년세대의 증가율(25세 이하 14%p 상승, 25–39세 12%p 상승)이 가장 높았다.[17]

유로바로미터 자료는 자원봉사와 교환활동을 통한 청년들의 이동성과 폭넓은 참여형태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조사에 응한 청년들은 해외경험 이후에 정치·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답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예를 들어, 해외경험이 있는 청년의 79%가 지역·국가·EU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였고, 해외경험이 없는 청년은 69%가 참여하였다. 해외경험이 있는 청년의 67%가 자원봉사 활동이나 지역공동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해외경험이 없는 청년의 54%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였다.[18]

1.1.1. 정책이슈

유로바로미터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이 인구집단 특유의 관심사이며 일반대중의 관심사와 다르다. 청년들은 **교육**과 **빈곤퇴치**(각각 56%)와 함께 **환경보호**(67%)가 향후 EU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19] 실제, 2019년 환경보호가 처음으로 교육보다 더 우선시해야 하는 주제로 떠올랐다. 일반대중은 1 – 물가상승, 2– 건강, 3 – 연금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0]

환경보호와 기후변화는 갈수록 청년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2018년에는 절반이었던 데 반해, 2019년에는 응답자의 약 67%가 EU가 이 이슈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답했다.[21] 그러나 청년들이 자신들의 배경에 따라 다른 사안에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통계에서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관심은 교육수준과 함수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랫동안 풀타임 교육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환경이슈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 풀타임 학업을 일찍(약 15세) 떠난 청년들은 빈곤퇴치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22]

1.1.2. 디지털 경향

유럽 청년들의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세상이 청년들의 삶과 그들의 민주생활 참여에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청년들의 온라인 참여 확대로 인해 전통적 청년참여구조가 축소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디지털 소통이 참여패턴의 불균형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는 좀 더 복잡한 관계의 증거도 있다.[23]

청년들을 위한 유럽집행위원회(EC)의 커뮤니케이션 및 소셜미디어 활동에 관한 최근 평가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참여수준은 높지만 상당 비율의 청년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는”) 반복 참여자들이며, 소외된 특정 하위그룹 청년들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이들 그룹에는 신규 이민자와 난민 등 이주해온 청년들과 학교 중퇴자, 교육수준

이 낮은 청년들이 포함된다.

소셜 네트워크나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청년들의 비율(EU28 2017년 14%)은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EU28 2017년 47%)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참여 수단으로써 소셜미디어의 잠재력을 시사한다.

청년은 하나의 동질 그룹이 아니며, 서로 다른 연령의 청년들은 자신들의 참여활동을 구조화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채널을 사용한다는 점을 통계에서 알 수 있다. 사실, 청년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성공한 전략의 대부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결합하여 활용했으며 다양성과 선택권을 보장하였다.[25] European Direct Contact Centre (EDCC)가 수집한 자료가 적절한 예이다. EDCC가 접수한 질문의 2/3 이상이 온라인으로 접수되었지만,[26] 질문자가 선호하는 채널은 주제에 따라 달랐다. 다양한 청년정책이나 Discover EU 이니셔티브에 대해 질문하는 시민들은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Erasmus+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27]

1.2. EU의 NGO 청년부문 발전 추세

우리의 조사에서는 청년 NGO 및 네트워크의 회원수 또는 가입자의 최근 추세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반적인 규모는 증가추세이며, 이는 EU 청년부문의 성장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일부 회원국에서 국가 단위의 '시민사회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외견상 모순된 추세는 동 챕터에서 좀 더 살펴볼 예정이다.

이 조사에 응한 단체의 절반 이상(55%)이 지난 5년간 **청년가입자 수는 긍정적인 추세**를 보인다고 답하였다.

단체 유형과 관련하여, 응답한 NGO의 절반 이상(57%)이 청년가입자 비중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청년운동의 경우 절반 이하(46%)가 증가했다고 답하였다. 주목할 것은 청년운동단체의 15%가 자신들의 단체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청년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관련 문헌에서 청년들의 참여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사회운동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통계가 다소 놀라울 수 있다.

조사에 응한 단체들은 청년 NGO 가입자가 증가하는 이유로 **유럽 내 이동기회**의 확대, 청년들을 위한 EU 재정지원 프로그램 확대,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한 청년들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제시하였다. 일부 NGO는 청년 하부그룹(청년 이주민, 청년 장애인 등)을 찾아내어 참여시키기 위한 자신들의 접근법을 개선한 것도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반대로 참여자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유사한 기회를 제공하고 유사한 활동을 조직하는 국가·국제 단위의 단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청년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다소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일부 NGO는 청년들의 관심사와 동기, 선호하는 참여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자신들의 전통적 모집방식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감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부 NGO는 자신들의 관리구조 혁신과정의 문제들, 사용가능한 재원 부족, 소셜미디어에서 효과적인 소통 부재 등 단체 내부의 요인들을 이유로 들었다.

우리의 조사 결과는 확대 측면의 두 가지 지표를 추가로 제시한다.

첫째, 조사에 응한 단체의 절반 이상이 지난 2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특히, 1/4 정도(27%)의 단체들은 2001년과 2010년 사이에 설립되었고, 비슷한 비율(25%)이 2011년과 2019년 사이에 설립되었다. 즉, 우리의 조사 표본은 **비교적 '젊은' 단체들**이다.

둘째, 조사 응답자 중 EU 보조금을 받는 NGO의 비율은 2014년과 2018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EU 보조금이 청년 NGO 부문에서 중요한 촉매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연구문헌과 인터뷰에서 확인된다. 비공식적 청년급여를 전달하고 취약청년들을 위한 선별지원을 제공하는 등 EU 청년들의 참여를 촉진하는데 NGO 부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28] EU에서 가장 큰 상급단체의 대표들은 동일 기간 동안 회원이 증가하였다고 답했으며,[29] 국가청년회의(National Youth Councils)는 2017년 4월 헝가리를 마지막으로 모든 EU 회원국에 설치됨으로써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유럽 청년 NGO의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일부 국가에서 NGO 활동에 대한 제한 때문에 어렵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일부 응답자들은 "시민사회의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표현하였고, 이 표현은 유럽평의회 인권위원(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이 사용하기도 했다.[30] 실제로 회원국의 정부부처가 예산을 삭감하고 공공지출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EU 차원의 재정지원은 많은 NGO들의 실질적인 생명줄이다.

1.3. 민주생활 참여에 대한 청년들의 경험과 시각

동 연구를 위해 모집한 표적집단을 통하여 우리는 청년들의 민주생활 참여와 관련한 유럽 청년들의 경험과 시각을 연구하였다. 표적집단의 응답에 따르면, 많은 청년들이 청년단체·청년연합에 참여할 기회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고 변화를 위해 사회적 행위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청년 NGO와 정치활동 또는 사회적 행위에 참여·가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청년대표·참여 활동이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적어도 1개 이상의 청년단체나 네트워크에 가입 또는 참여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보통 그들 자신의 특별한 가치나 상황을 반영하지만, 누군가가 가입을 부추겼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 일부는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입하는 반면, 다른 많은 청년은 정치적 동기만이 아니라 (친구가 가입했거나 여행 가서 새로운 장소를 보고 싶은) 사회적 이유로 청년 이니셔티브 가입을 결정하였다. 단체가입은 참여·대표활동을 위한 채널을 제공하기도 하고, 의제를 공유하는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의 연대의식과 개인적 발전의 채널을 제공하기도 한다.

청년들은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혜택으로 동기부여 되기보다는, 기금모금이나 커뮤니케이션, 다른 문화에 열린 마음, 자신감 고양 등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경험의 기회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

참여패턴과 관련하여, 청년들은 통계가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통계조사에서 스포츠 활동과 정치 활동 참여를 통합하여 집계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기후변화나

정신건강 캠페인 등 최신 이슈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활동방식은 정치활동이나 정치단체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그룹에 가입·참여하는 경우가 더 많다.

표적집단의 청년들은 **주요 청년단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있었다.** 청년들을 위한 기회는 충분히 있지만, 청년들이 단체들에 대해 알지 못하고 단체가 하는 일도 알지 못한다는 전반적인 인식이 있었다. 청년들이 단체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어색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참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기꺼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청년들이 정치구조에 환멸을 느끼고 청년단체들이 정치단체로부터 충분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민사회와 지역사회단체가 좀 더 중요해졌다고 청년들은 답했다.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지만, 청년들은 공통적으로 **정치인들과 정치시스템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였다.

청년들은 공식적인 정치와 비공식적인 정치를 뚜렷하게 구분하였다. 청년들은 공식정치를 엘리트주의적이고 계급적이며 접근불가능하고, 종종 비공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일부 경우에 부패하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조종한다고 생각했다. 비공식 정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공통점을 발견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사회의 발전을 위한 호의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열정을 느끼는 무언가"에 대한 관심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한 그룹은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선택에 구속되는 사람들 사이의 엄청난 격차를 언급하였다. 일부 사람들에게 정치란 행동주의와 캠페인, 인식제고, 대화를 통해 '단순히'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청년들은 '공식적인 정치'보다는 소셜미디어 시위 등 '대안적' 형태의 정치에 좀 더 매력을 느낀다. 청년들은 대안적 정치가 좀 더 접근가능한 방법이며, 빠르고 더 포용적이며 효과적인 동시에 지역단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일부 응답자는 브렉시트와 같이 '큰 이슈'가 있을 때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이며, 국내정치 보다는 국제문제가 더 흥미롭다고 말했다. 다른 이들은 의견을 표명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만 주목하였다. 일부 응답자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곧 정보를 획득하고 정치적 대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투명성 부족과 특히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정당정치에 대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고 정당과 공식적인 시스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당이나 정치시스템이 청년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강한 인식이 있다. 경제적 이슈나 자신들의 지위와 개인적 이익에 관심을 가지는 정치인들에 대해 일부 응답자는 박탈감과 환멸을 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이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청년들이 정치인에게 로비를 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참여방식으로는 정당이나 선거보다 NGO와 사회운동, 상향식 풀뿌리 사회행동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참여수단이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답하였다.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지역공동체 단위의 활동에 참여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청년들의 활동을 통해서 청년들의 관심을 활용할 수 있고 대표활동과 참여를 더 확대할 수 있다.

정당정치와 선거는 일관되게 중요하거나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정당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년도 많지 않았다.

대신, **청년들은 자신들의 일상과 관련된 캠페인과 활동에 더 동기부여** 된다. 조사에 참여한 한 그룹은 정당정치가 좀 더 전통적인 표현양식인 반면, 시민단체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전통적인 의사결정 모델에 '도전'한다고 평가했다. 일부 그룹은 정당과 선거가 청년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정당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자신들이 '정당 전체로부터 분리'되어 있어 참여가 제한적이라고 느꼈다.

정당정치와 선거로부터 거리를 두는 청년들의 성향은 청년 대표활동의 부족, 행동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한 인식, 투표연령 등 연령제한으로 인한 직접적인 참여기회의 제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응답자들은 좌파와 우파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진짜 문제'에 집중하고

다 같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NGO를 **통한 사회행동과 참여는 청년들이 변화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좀 더 접근가능한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 구조 내에서 청년 대표활동과 청년들의 참여를 개선하려는 EU와는 달리, 청년들은 이러한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하게 답하였다. **성인들이 제어하는 영역에 공식화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단위에서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참여구조를 지원하는데 집중할 필요성**이 여기서 제기된다.

온라인 캠페인은 많은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참여형태**이다. 대부분의 청년은 온라인 청원에 참여한 적이 있고, 일부는 온라인 기금모금에도 참여하였다. 예를 들어, 크로아티아의 Support for the Curriculum 개혁은 대체로 페이스북을 통해 활동을 조직하고 홍보하였다. 디지털 플랫폼은 전통적인 참여형태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많이 제거해주고 시골 거주 청년 등 일부 그룹이 캠페인과 사회행동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몇몇 응답자는 **온라인 참여가 항상 효과적인 사회행동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많은 청년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많은 경우에 그 결과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또한 온라인에 있는 정보가 사실인지, 따라서 특정 사회행동이 실제인지를 알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청년들은 소셜미디어가 학습과 만남의 플랫폼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만, '실제' 참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인생경험과 직접 관련 있는 이슈에 동기부여** 된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경험하는 스웨덴의 청년이주민들은 사회적 포용과 차별철폐에 관심을 가진다. 청년이주민, 노숙자, 장애인 등 특정 그룹에 대한 차별금지, 양성·인종 평등, 빈곤퇴치, 교육, 사회적 포용 및 통합 등 **사회정의 이슈**가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관심사로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다. 언급된 다른 이슈에는 정신건강, 웰빙, 환경이슈 등이 있다.

단지 단체(NGO)의 회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캠페인, 기금모금, 탄원서 서명 등 '사회행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참여하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아일랜드의 동성결혼 등 '페이스북 피드에 뜨는' 청원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온라인 청원 및 모금 캠페인이 특별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다른 청년들에게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은 시민사회와 청년 NGO를 사회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고',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자원(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정치구조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모멘텀을 쌓는' 데에는 청년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가 더 강력하다고 인식하였다.

지역에서의 사회행동은 청년들이 비교적 쉽게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시위와 가두행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많지 않다. 청년들은 "자신이 가장 강력하다고 느끼고, 자신을 완전히 표현하고, 자신의 습관과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도" 사회적 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

표적그룹 내 청년들 사이에는 **기회가 적은 청년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더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는 데 상당한 의견일치가 있었다. 이 청년들은 **소외되고 차별받고 구조적으로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로서 소수민족집단, 이주민, 종교집단, 성소수자(LGBTQ+), 장애청년, 청각장애자, 노숙청년, 시골 거주 청년, 정신건강 이슈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청년들은 기회가 구조화되는 범위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EU 단위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EU 거품' 속에서 활동하게 되고, 이는 '엘리트들의 취미'처럼 보일 수 있다. 반대로, 위에서 언급한 소외집단들은 먹을 것과 잘 곳을 찾고 관료주의를 상대하는 등 자신들의 삶에 몰두한다.

온라인 소셜미디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은 가족이나 학교가 청년들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스웨덴 청년들은 소수민족과 소수종교가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이해 부족 때문이다. 결과적으

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문화주의와 평등, 차별금지 등에 대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일부 응답자들은 가장 큰 장애물이 청년들의 소극성과 나서기 꺼려하는 성향이라고 주장하였다. 소셜미디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청년단체를 활용하여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를 개선하는 것이 이러한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이 될 수 있다. 특정 집단에 대한 맞춤형 접근, 청년들의 일상생활 현실과 연계, 개인적 혜택 강조, 단체의 우선순위보다 청년들의 관심사에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청년들은 청년단체들이 이미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확보하였으며 청년들의 필요에 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학교를 통한 교육 및 인식제고가 청년들의 참여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가장 자주 언급된다. 하지만 (시민, 사회, 정치) 교육이 제공된 경우에도 그 유용성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은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행동, 정당, 참여방법에 대한 정보가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교와 대학의 참여구조는 청년들이 '공식적인 교육시스템 내에서 매우 이른 나이에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 정치인과 활동가들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온라인 또는 직접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청년들이 정치적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변화를 만들어 낸 사례를 배포하는 것도 청년들을 동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정 청년집단에 접근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도 준비해야 한다. 청년 NGO가 이러한 전략을 꼭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응답자들은 청년을 문제로 인식하고 청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시스템 자체를 살펴보고 청년들의 시각과 현실에 더 잘 맞춰나가도록 정당정치를 개조하고 대표활동 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의 네트워크와 단체들은 국가 및 지역 구조에 책임과 대표성을 부여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유럽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청년평의회(European Youth Council)를 설치할 할 수도 있다.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비결은 EU가 그들의 상황에 맞추어 빈곤, 사회적 배제, 차별, 배척, 기본권 등 그들에게 중요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

다.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캠페인, 프로젝트,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통하여 어떤 기회가 있는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표적그룹들은 **청년들이 관심도 있고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종종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선택권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는 참여하는 청년의 일부는 반복 참여자들로 여러 NGO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동 조사의 NGO 자료에도 어느 정도의 이중계산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 문제가 시민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많이 아는 소수와 일상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다수 사이의 참여격차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청년들을 참여시키고 정보가 시청이나 단체의 서류함에 처박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년시민단체를 지원하는 등) **네트워크와 소통 채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인프라가 취약한 EU 주변지역, 시골지역, 소도시의 청년들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소액보조금을 통해 개인과 소규모 이니셔티브(신참들)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럽집행위원회(EC)의 재정지원 제도가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액보조금은 경험이 없지만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이 단체의 관심사보다 자신들의 관심사를 위해 참여하고 이니셔티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들이 만들어낸 변화와 획득한 혜택을 강조하고, 청년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도 있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동기부여 요소가 될 수 있다. 청년들이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를 사용하여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EU 네트워크를 더 잘 활용할 여지가 있다. 가치 있는 경험과 훈련기회를 얻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자신을 개발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등 자원봉사의 혜택을 전파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일부 청년들은 유럽집행위원회(EC)가 청년들의 생활방식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청년들이 시민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만들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단체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에게 '사람들을 통합'시키는 방법을 훈련시키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동시에, 유럽집행위원회가 여러 청년그룹의 대표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삶과 경험,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배울 것을 제안하였다. 단지 '다양성의 이미지'가 아니라 청년들의 다양한 시각이 '유럽의 시각'에 포함되도록 캠페인과 공공플랫폼 내 소수자

들의 가시성을 높이는 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 결론과 제언

2.1. 전반적인 메시지

동 연구 전체적으로 '대표'의 개념이 다소 유동적으로 사용되었고 서로 상충하는 경우도 있다. 청년들은 꼭 성인이 주도하는 기존 구조 내에서 대표되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역 단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유연한 방법을 찾았다. 공식적인 정치와 정당가입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청년들은 이러한 형태가 계급적이며 접근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열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정치·사회적으로 표현하는 비공식적 형태를 선호하였다.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유럽인이라는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EU 단위의 기관과 단체가 그들을 대표한다고 느끼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많은 NGO 대표자들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지원받는 이해당사자 (또는 EU 보조금 수령자)의 입장에서 나온 현재 상황에 좀 더 치우친 시각이다. 이들의 권고사항은 EU 기금의 구조화와 집행방식, 협동작업, 기존 인프라 개선에 좀 더 집중되어 있다.

서로 다른 시각들이 꼭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사실은 청년을 '대표하는' NGO나 기타 중재기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직접 행동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의미 있는 채널을 개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EU·국가·지역 단위에 수직적으로 조직된 전통적·계층적 청년 대표활동 구조에서 벗어나 '네트워크화 된 시민사회'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반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동 연구에서는 청년부문이 좀 더 분산되고 다양해졌으며, 지역 청년운동과 청년주도 캠페인에 목소리를 부여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EU의 공식적인 구조가 쓸모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공식구조는 여전히 그 가치가 높고, 지역에서 제기하는 이슈를 증폭시키고 자원을 동원하고 훈련하고 배포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을 동 연구는 보여준다. 하지만 청년 NGO들은 자신들도 청년이슈를 넘어서 EU 전역에서 다른 NGO와 수평적 파트너십을 맺고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낸다.

2.3. 연구 권고사항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를 위한 권고

1. EU 보조금의 지원규모와 기준을 검토하고 간소화하여 풀뿌리 NGO와 청년운동의 접근성을 확대

동 연구의 핵심 메시지는 청년 부문의 EU 보조금 규모와 지원을 받기 위한 행정적 요구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NGO 조사 및 인터뷰에 따르면, 자격기준과 절차에 관한 많은 혼란이 있었다. 서로 다른 실행계획에 관한 오해로 인해, 일부 NGO는 '사정을 잘 아는' NGO에 대한 왜곡된 시선뿐만 아니라 EU 재정지원을 청년부문에 배분하는 방식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심지어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 기회에 현재 지원시스템을 재검토하여 이러한 피드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2. 소외계층 청년들과 그들을 참여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풀뿌리 NGO를 위해 추가적인 EU 보조금을 용도지정하여 마련

기회가 적은 청년들의 참여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는 데 표적그룹 청년들 사이에 상당한 의견일치가 있었다. 모든 청년이 의견을 표명하고 자신들의 견해가 주목받도록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참여자들은 동의하였다. 특히 사회경제적 또는 다른 사유로 소외되어 있거나 건강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경우에 그러하다. 이러한 견해에 NGO 조사 응답자들도 대체로 동의하였다.

따라서 유럽집행위원회는 Erasmus+ 프로그램 내에서 시골 거주 청년, 장애인 청년 등 특별한 불이익이나 민주생활 참여에 장애물을 경험하는 청년들을 위해 자금을 용도지정하여 이 집단에게 EU 재정지원이 좀 더 접근가능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 다른 제안은 프로젝트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잠재적 참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수혜자들은 필요한 경우 비상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청단계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필요가 차후 발생한 경우에 비상기금이 필요할 수 있다.

3. EU 보조금 활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청년들이 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지원

유럽집행위원회가 새로운 재정지원 기간 동안 EU 전반에 걸쳐 어떻게 청년 대표활동을 지원할지와 관련하여, 동 연구는 청년들의 우선순위와 NGO 대표자들의 우선순위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청년들이 EU 자금 사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EU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프로젝트가 광범위한 협의에 기반하고 진정으로 청년들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유럽집행위원회는 청년들이 (NGO 및 파트너들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사용한 정기조사나 협의를 통해) 재정지원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청시 증거 요구조건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 '네트워크화'된 청년 부문의 진화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존 EU 청년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최적화

연구결과에 따르면,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시민사회에서 진화하는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유럽집행위원회 청년 플랫폼과 프로그램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게 보인다.

지역 NGO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EU 재정지원의 정기적인 수혜자인 대규모 유럽단위 NGO 및 청년단체와 지역 NGO 간 파트너십을 권장할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한 단체는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기반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파트너십 기반 모델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파트너십 기반 재정지원을 지지한다고 해서 운영보조금을 통한 계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배

제하는 것은 아니다. 운영보조금 없이는 특히 국가단위 재정지원이 거의 없는 회원국의 많은 단체가 존재조차 하지 못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많은 조사 참여 단체는 장기적인 재정지원을 선호하였다. 장기적 재정지원은 단체들의 안정적·전략적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한 단체는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연례 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다년간 재정지원을 배분해줄 것을 유럽집행위원회에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이것 아니면 저것" 식으로 재정지원을 배분할 필요는 없다. 반복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아온 큰 단체 아니면 신생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 대신, 지식을 전달하고 신생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생단체와 반복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협력활동에 재정지원을 집중시킬 것을 우리는 제안한다. 정기적으로 EU의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와 신생단체 사이의 파트너쉽을 위해 역량강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일부를 특정 목적용으로 배정하는 방식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5. 유럽 전역의 청년 NGO간 수평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새로운 플랫폼과 공간으로 보완

동 연구를 위한 인터뷰와 조사에서 거버넌스와 재정,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중개, 파트너십 작업, 디지털 도구에 대한 접근성 등 유럽집행위원회(EC)의 추가적인 NGO 지원에 대한 상당한 수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소프트 인프라'는 위에서 설명한 EC의 제도를 보완하고 확대한다. 이는 장비(작업·회의공간, 인터넷, 전화, 공동행정기능 등)를 갖춘 장소에 대한 접근권 공유 또는 합동사무소를 활용한 협력작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포함한다.

6. 청년 NGO의 모니터링 및 평가 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 및 소셜미디어 자료를 활용하는 사용자 친화적이며 표준화된 도구 개발

동 연구는 청년 NGO가 시행하는 모니터링과 평가의 수준이 다소 고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실제 동 부문의 역량 및 시간 제약을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평가활동의 부족은 청년참여의 가치를 증명하는데 잠재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NGO가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할 근거를 제한한다.

청년부문 내 자가평가와 근거기반사업 문화를 권장함으로써 산출물 중심의 모니터링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가 수행할 잠재적인 역할이 있다. 해법 중 하나는 EU 재정지원의 행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또한, NGO들이 자가평가를 위한 기술과 노하우를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청년 NGO 부문에 적합한 사용자 친화적이고 인증된 도구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 확대되고 있는 NGO의 디지털 송금규모를 고려할 때, 이 목적을 위해 디지털 및 소셜미디어 자료를 활용할 미개척 잠재력이 있다.

7. 격차해소를 위한 추가연구 검토

동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EU 청년 대표활동의 변화하는 패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주제를 발견하였다. 우리가 검토한 증거에 기초하여 다음의 분야를 제시한다.

a) 정치적 참여 및 행동을 위한 새로운 공간에 관한 연구
b) 참여활동의 거품 깨기 –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의 견해와 열망
c) 청년 대표활동에 관한 세대내 견해차 이해
d) EU 청년들에게 적극적 시민이 된다는 것의 의미와 혜택
e) 청년운동과 대안적 참여형태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
f) 유럽 청년부문의 디지털 사용실태 파악

EU 회원국 및 지역 이해관계자를 위한 권고

8. 민주생활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기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청년 정보서비스, 소통 캠페인, 학교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접근가능하게 만들 것

동 연구는 청년들을 참여시키고, 민주생활 참여기회에 관한 정확하고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표적그룹 내 청년들은 이를 위해 학교, 소셜미디어 캠페인, 기타 청년정보서비스 등을 통한 다채널 접근법을 지지하였다.

행동은 여러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부문의 파트너십을 위한 재정지

원을 통해서, 그리고 청년 소통캠페인과 NGO의 정보·조언·지침 제공역량 강화를 위한 EU 재정지원을 활용하여 가능하다. 하지만 청년들의 참여는 결국 청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지역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고품질의 청년 정보서비스와 학교에서 제공하는 고무적인 자료들을 통해 접촉하고 참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은 개별 EU 회원국과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소관이다.

마지막으로, 유럽집행위원회는 청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을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문화 역량과 반차별적 실천 등에 관한 국제시민교육과 지역·국가·EU 단위의 참여기회에 대한 인식제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기회와 이니셔티브뿐만 아니라 청년 캠페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달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좀 더 잘 활용하는 방안이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9. 재정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지원이 확실히 각 회원국의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하여 EU 보조금 프로그램 내 공동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장

많은 Erasmus+ 지원 프로그램에 현재 20% 공동 재정지원 요건이 있다. 지금은 공동지원을 확보할 책임이 청년단체들에게 있다. 동 연구에서 수집한 피드백에 따르면, 다른 재정지원을 끌어올 기술과 인지도가 부족한 작은 NGO들은 이 요건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파트너십 결성은 NGO들이 현재 자금환경 내에서 운영가능하도록 규모의 경제를 제공하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청년 NGO 부문의 인상적인 잠재적 성과와 청년 대표활동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강한 청년 부문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적 필요요건의 많은 부분을 정부부처와 지방당국이 떠안아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있다. 청년이 국가적 우선순위 대상임을 확실히 하고 EU 청년 프로그램의 영향력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회원국 내 국가·지방당국이 공동 재정지원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한다면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1) Eurobarometer 478, Op. cit., fl_478_volume_B Q1 “Which of the following topics should be a priority for the EU in the years to come?”

2) Eurostat (2019) Child and youth population on 1 January by age and sex, yth_demo_010, last updated 06 June; and population of 1st January 2019

3) European Commission (2018) the Situation of young people in Europe, staff working document, COM(2018)269 final.

4) 질문의 표현이 바뀌었기 때문에 2017년과 2019년 자료를 비교하는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2017년 “지난 3년간 선거에서 투표한 적이 있습니까?” / 2019년 “다음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5) Flash Eurobarometer 319 ‘Youth on the Move’; 2017 Flash Eurobarometer 455 'European Youth, p. 4 Flash EUrobarmeter 478 p. 20.

6) Standard Eurobarometers 74 (20 76 (2011), 78 (2012), 79 (2013), 82 (2014), 84 (2015), 86 (2016), 87 (2017).

7) 출처: Standard Eurobarometers 74 (2010), and 87 (2017).

8) European Youth Portal, 2018, Op. cit.

9) Eurobarometer (2019) European Citizenship, June,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p. 15 ,”Please tell us to which extent you feel attached to the European Union”, QD1a.3.

10) Fernandes, T., Cancela, J., Coppedge, M., Lindberg, S.I. and Hicken, A. (eds.) (2015). Measuring Political Participation in Southern Europe: The Varieties of Democracy Approach. V–Dem Working Paper 2015(15). DOI: 10.2139/ssrn.2692553

11) Cammaerts, B., Bruter, M., Banaji, S., Harrison, S. and Anstead, N. (2013) EACEA 2010/03: youth participation in democratic life, final report. LSE Enterprise, London, UK.

12) European Commission (2018), Op. Cit.

13) European Commission (2019) Flash Eurobarometer 478, Op. Cit.

14) 표적그룹 참여자들은 이러한 통계를 국가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실,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2019년 유로바로미터 통계가 그들 국가의 참여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참여수준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부 청년들(예를 들어,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청년들)은 이 통계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통계가 자원봉사와 함께 정치참여와 매우 다른 스포츠 활동 참여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15) 위의 책. (2019), Main report, p. 20, q6: “Have you ever participated in the following activities?”

16) 위의 책. (2019) Briefing note, p.5.

17) European Parliament (2019), Special Eurobarometer 91.5, p.2. The 2019 European Elections: Have European Elections Entered a New Dimension? Executive Summary.

18) 위의 책. (2019) Main report, p. 27

19) European Commission (2019) Flash Eurobarometer 478, p. 8 Q1 “Which of the following should be priorities of the EU for years to come?”

20) European Commission (2018) Standard Eurobarometer 90, Autumn 2018, pp. 15–16

21) Eurobarometer 478, p. 8; and Eurobarometer 455, p. 9.

22) Eurobarometer 478, fl_478_volume_B Q1 “Which of the following topics should be a priority for the EU in the years to come?”

23) Milner, H. (2009) The Internet: Friend or Foe of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5th biennial conference of the ECPR, Potsdam, (cited in Willems et al. (2012).

24)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Communication (2019) Review of European Commission materials and activities targeting youth: Final synthesis report.

25) Crowley, A., and Moxon, D. (2017a) New and innovative forms of youth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Brussels: Council of Europe, URL: https://rm.coe.int/new-and-innovative-forms-of-youthparticipation-in-decision-making-pro/1680759e6a

26) European Direct Contact Centre (2017) Annual Activity report, p. 4, URL: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europe-direct-annual-activity-report-2017_en.pdf

27) 이 결과에는 모든 연령이 포함된다. EDCC 자료는 요청에 의한 것이다.

28) Council of Europe (2019) Shrinking space for civil society: its impact on young people and their organisations, URL: https://www.coe.int/en/web/youth/shrinking-space

29) 예를 들어, 유럽청년포럼(European Youth Forum)에 지난 10년간 10개의 새로운 NGO 단체가 가입하였다. 동 포럼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5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4-5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야 한다. (출처: 유럽청년포럼 간부와 인터뷰)

30) McBride, J. (2017)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review of developments in standards, mechanisms and case law 2015-2017, Expert Council on NGO Law, December 2017. CONF/EXP(2017)4, URL:https://rm.coe.int/expert-council-conf-exp-2017-4-ngos-review-of-developments-in-standard/16807864dc